

여수시, 전남권역 재활병원 본격 추진

전남대 국동캠퍼스 부지에 150병동 규모...전남대병원 위탁 운영
458억원 투입 시설계 거쳐 내년 11월 착공 2022년 11월 완공

여수시가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전체면적 1만3650㎡, 지하 1층, 지상 5층, 150병동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458억원이며, 전남대학교는 30억 상당의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
올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같은 해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척추손상·뇌손상·근골격계·소아 재활을 전문으로 한다.
내과, 치과 등 진료 과목을 점차 늘려 시민에게 대도시 못지않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전남권역 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행정 절차와 국·도비 확보 등에 힘썼다.
2018년 민선7기 들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고, 수준 높은 의료



전남권역 재활병원 조감도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를 270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늘렸다.

2019년에는 실시계획 30억 원을 확보했고,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재활병원의 청사진도 그렸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활병원의 건립과 운영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활병원이 문을 열면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 의료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외식산업 육성 시민평가단 30명 모집

여수시, 다음달 13일까지

여수시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시민평가단 30명을 모집한다.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집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시민평가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관광지 주변과 음식점 5400여개에 대한 친절 등 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개 업소를 평가하면 활동비 1만5000원을 지급하며 평가는 한 달에 2-3건으로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우편(여수시 시청서 4길 47)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관광웹드라마로 여수 빛낸 김상욱 팀장 '한국을 빛낸 베스트 공무원 대상' 수상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시 공무원이 '한국을 빛낸 베스트 공무원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상욱 여수시 관광마케팅 팀장이 지난 19일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연인연합회 등이 주관한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베스트 공무원 대상을 받았다.

김 팀장은 동백에 이은 새 웹드라마를 내년 4월 개봉 할 예정이다. 이달 초 촬영을 마친 새 작품은 출산율 감소 문제를 소재로 한 SF 웹드라마 '호점화'로, 여수반도가 나비 모양으로 생긴 데서 착안했다.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 온,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주인공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여수 출신으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김 팀장은 최근 5년 동안 관광마케팅 업무를 전담해 왔다. 김 팀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직접 시나리오(신지끼)를 쓰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참여해 만든 저예산 웹드라마를 해마다 1개씩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사건을 다룬 드라마 '동백'을 제작해 서울웹페스트 특별상과 스페인 발바오 웹페스트 황금극대상을 따냈다.
특히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스페인 발바오까지 날아가 여수사

건 진상규명 관련 영상을 상영해 기립 박수를 받는 등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여수시 주요 관광지를 국내외에 소개해 5년 연속 1300만 관광객 달성에 기여했다.
김 팀장은 동백에 이은 새 웹드라마를 내년 4월 개봉 할 예정이다. 이달 초 촬영을 마친 새 작품은 출산율 감소 문제를 소재로 한 SF 웹드라마 '호점화'로, 여수반도가 나비 모양으로 생긴 데서 착안했다.
웹드라마를 통한 관광마케팅과 함께 김 팀장은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춘 모바일 앱 '어 여행' 등을 출시해 관광객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서는 홍보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김상욱 여수시 관광마케팅 팀장은 "스페인 발바오 초창기 당시 현지인들이 여수사건을 다룬 동백 상영 후 스페인 내전을 그린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떠오른다. 큰 박수갈채를 보내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동안 여수관광 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해 준 관광과 직원들과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4차 산업혁명 기술 집약된 이순신도서관 27일 개관

198억 들여 웅천지구에
코딩로봇·3D프린터 체험
디지털 아쿠아리움 조성

여수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이순신도서관(사진)이 여수시 웅천지구 에 27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순신도서관은 19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5622㎡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합친 '이순신 라키비움(larchiveum)'이 들어섰다.
라키비움에는 난중일기 번역본이 전시되고 화면을 보며 거북선을 조종하는 시설도 마련됐다.
2층에는 코딩 로봇과 3D프린터를 경험할 수 있는 '상상 창작소'와 55인치 멀티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해양 생물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디지털 아쿠아리움'이 조성됐다.



3층에서는 일반 자료실과 이순신 장군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놓은 '이순신 아카이브'가 들어섰고, 4층은 학습실과 그룹토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차 안에서 도서관을 반납할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스루'와 보관 도서의 위치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장서 점검로봇'을 도입했다.

개관식은 27일 오전 10시 이순신도서관 앞마당에서 권오봉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대중교통 평가 4회 연속 '최우수'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

여수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이번 수상으로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고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2년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안정성과 쾌적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19개 지표, 61개 항목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161개 시·군을 인구 규모, 도시철도 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순

위를 정했다.
여수시는 광양만권 3개 시(여수, 순천, 광양) 광역시내버스 개통, 버스 정류장 발열의자·온실텐트·에어컨 설치,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마을버스를 도입해 고지대 주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했고 운수종사자 교육관을 신축해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버스정보안내기(BIT) 확충과 교통정보 앱 기능 개선 등 교통행성 선진화에 힘썼고, 초등학생 100원 버스를 시행해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점이 인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면서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작은 소리에 드워 기울이는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